

대학 구조조정 칼날 왜 지방대만 겨누나

감축 규모, 서울·수도권의 2배... '몰락' 우려 취업률·학생모집 절대평가 상대적 불리

이달 말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지방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 규모가 서울·수도권지역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대부분 7%나 평가시 만점 수준인 10%를 감축하기로 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거나 가산점을 받기 위한 최소 수준인 4%를 줄이는데 그쳤다.
27일 전국 56개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0~4%, 지방 대학은 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결과적으로 취업률·재정·학생 모집이 불리한 지방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대 쇠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 대상의 서울·경기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

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4%와 5%의 가산점이 3점으로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은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거나 최하점을 받는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마지못해 정원을 감축하는 '시늉'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 (18개교) 또는 10% (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지

역에서는 순천·목포·동신·호남대 등이 10%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7% 정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해 5개 등급을 나누고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 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연합뉴스

4년제 졸업 후 '전문대 입학' 40배 급증

2014년 입시 경쟁률 7.7대 1

2014학년도 전문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7.7대 1로 집계됐다. 또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전문대학을 찾는 유턴 입학 학생이 40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 137개교의 입시 결과를 취합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7.7대 1, 평균 등록률은 97.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도 경쟁률 7.5대 1, 등록률 97.6%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쟁률은 11.2대 1, 지방은 5.2대 1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뚜렷했다. 평균 등록률 역시 수도권이 100%였던 데 비해 지방은 96.5%로 다소 차이가 났다.
학과별로 보면 실용음악학과와 연기과와 경쟁률이 각각 185.4대 1, 112.9대 1을 기록해 1, 2위를 차지했다. 항공서비스과(59대 1), 문예창작과(38.8대 1), 간호과(32.3대 1), 유아교육과(30.2대 1), 사회복지과(27대 1) 등도 인기가 높았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재입학 학생은 1283명으로 전년도(30명)에 비해 4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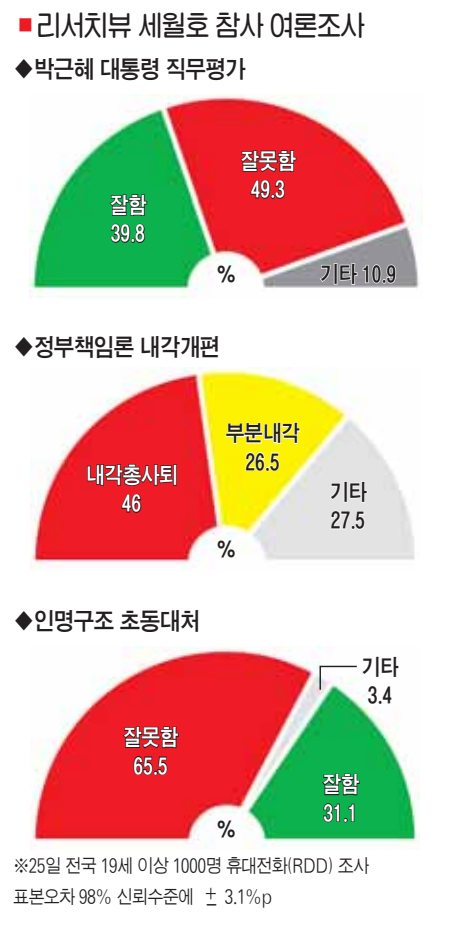
국민 90% "초동대처 늦어 피해 컸다"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전국 성인 1천명 여론조사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해수부·안행부·해경 순

대부분의 국민이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초동대처가 더 신속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의 국민은 가장 책임이 큰 정부 당국으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25일 팹트 TV 의뢰로 전국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대처에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에 그친 반면 65.5%의 국민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침몰사고 직후 관계당국이 초동대처를 더 신속하게 했더라면 인명피해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크게 줄었을 것", 19.5%는 "다소 줄었을 것"이라고 답해 89.9%의 국민이 공감했다. 책임이 큰 정부당국으로 청와대(33.9%)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해안수산부(19.4%), 안전행정부(17.8%), 해양경찰청(1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급락세로 눈에 띄었다. 직무평가에 대해 '잘함'은 39.8%로, 지난 4~5일에서의 49.7%에서 9.9%포인트 급락했다. 20~30대 젊은 층의 '잘함' 응답 비율은 각각 20.9%, 23.0%에 불과했으며, 50~60대 중년층 이상은 각각 50.3%, 70.0%로 세대 간 차이가 극명했다.
세월호 참사는 6·4지방선거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안정론'에 중점을 두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으나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은 43.0%로, '심판론'이 우세했다. 그동안 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안정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안정론'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3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요한 23세·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추대

교황 요한 23세(1881~1963)와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가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랐다. 전임 교황 두 명이 동시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것은 가톨릭 사상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7일(현지시간) 바티

칸시티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두 교황에 대한 시성식을 주재하고 "복자(福者)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있던 100만여 명의

순례객은 두 교황이 성인으로 선포되는 순간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멘'이라고 외쳤다. 시성식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참인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두 교황을 기리는 동시에 생존하는 두 명의 전·현직 교황까지 모여 '네 교황의 날(four-pope day)'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미정상, 북 핵위협 강력 경고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전작권 전환시기도 재검토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박근혜가 이를 일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향후 대북 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공식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 지역의 계속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은 북한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27일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일색적으로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북한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 핵과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를 약탈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특히 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면서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 행차 결과는 미국과는 많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 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백만 배 높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천명한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와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라며 핵 위협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노가리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28~30cm의 엄선된 수산물로 전량 러시아산의 명태를 강원도 고성 지역의 덕장에서 건조하고 가공, 포장한 노가리를 전 국민에게 저렴하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점이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술안주로는 최상품이라 자부하는 저희 제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태 동태 명태 코다리...곧 출시예정

◆이렇게 큰 가리비를 이 가격에!!!
국내산 가리비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압도하는 최상품의 가리비를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100%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산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밖에 대구, 한치, 꽃징어, 낙지... 있습니다. (주)해감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 할 것입니다.

◆배달도 되나요?
됩니다. 전국 어디라도 배달합니다. 통산만, 택배 모두 됩니다. 북한은 안 데!!!
코메디언 한무가 한입 베어 물고 극찬한 가리비와 노가리를 즐으며 한무가 풀던 노가리(이야기)를 밤새들었다.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농업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두암신협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6개월 3.1%
1년 2.95%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